

# 時間과永遠

—受難者를爲하여—

安 炳 茂

이 붓을 드니 공교롭게도 밖에서 무서운 비명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한 警察官이 어떤 사람을 追躡하여 바로 내있는 집앞에서 잡은 模樣인데 그는 事情없이 고압을 치면서 무수히 난타하여 相對方은 悲鳴을 내면서 애절하는 소리가 들리드니 警察은 그를 체포한채 지금은 멀리 밤거리에서 택시켄정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마랐습니다. 지금 내 記憶에는 한 꿈을 본 것같이 그 事情이 몽롱한 따름입니다. 나는 이 事實에서 아래와 같은 生覺이 聯想되었습니다. 하나는 그 悲鳴과 함께 내 머리에 受難者들의 처참하고도 창백한 모습 絶望속에서 실음하는 얼굴들이 떠올라왔고 다음은「모든것은 時間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라는 時間에 對한 生覺이 그것입니다.

受難者들의 苦痛! 터져나오는 哭聲! 끝없는 無抵抗으로 평평히 어드는 自殺者의 모습! 아

나는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나는 내몸을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서 논아 주는 것을 幻想합니다. 그런데 이 幻想은 受難에 對한 분노에 발악하여 피물은 칼을 들고 지금 平安히 앉아 글을 쓰는 나를 질투하여 門앞에 怒濤와 같이 물려오는 것으로 變합니다. 나는 이런 幻想을 가진채 世上에서 버림을 받고 衰殘해가는 肉體를 안고 呻吟하는 兄제 이 글을 씁니다. 兄이여 兄을 包含한 受難者의 苦痛의 原因이 大體 어떻게 있을까요? 나는 이번은 모든 同情의 마음을 버리고 冷靜하게 그 原因의 本質을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명우께 있는 모든 것과 함께 人間에게는 兩面이 있을것입니다. 永遠에 屬하는 것과 時間에 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소박하게 논우면 物質性은 時間에 屬하 것이고 精神的 또는 靈的인 것은 永遠에 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苦痛의 溫度如何는 時間 不問에 두고 우리들의 苦痛의 內容은 大體로 時間에 屬할 卽 物質性에 屬한 것은 否認할수 없을 것입니다.

時間은 人間性의 基本特徵이며 自己 美現의 基本的形式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時間안에 있는 人間으로서 時間的인 것을 超脫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時間的인 것의 本質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을 苦難에 對한 態度를 定하는 때 決定的인 意義가 있다고 生覺합니다.

時間的인 것은 相對的인 것입니다. 時間性에는 “보다 낫다,” “보다 피롭다,” “보다 좋다,” 라고는 할수 있어도 絶對라는 말은 쓸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의 모든 것은 條件的인 것입니다. 善한 것은 반드시 惡한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미꽃에는 가시라 있고 지나치게 만연쓰고 만나는 기쁨에는 離別의 슬픔이 內包되어 있으며 가졌다는 것은 벌써 없어진다는 것을 前提로 한것입니다. 어느 自己의 美를 자랑하는 女人이 自己의 얼굴이 變化가 심하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얼굴의 變化보다도 比較의 標準에

따르는 心的 變化가 더 큰 原因일 것입니다. 땅속에 美의 標準이 어디 있습니까 科學자들은 萬一 크메오파트라의 코가 일흔이라도 높은지 낮은지 했어도 西歐의 文明에 變化가 있었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時間안에 있는 產物의 相對性을 잘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時間안에 있는 우리의 苦痛도 이것과 다를 때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내가兄을 찾았을 때에 몸에 若干의 傷處로 發熱했었으나 兄의 앞에 있는 동안 조금도 그 苦痛을 느끼지조차 못했읍니다.

時間은 制限이 있습니다. 그것은 時間은 부단히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回想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아식 살수 있었는가를 疑心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날에 어느 斷腸의 슬픈 事件을 生覺하면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은 그 때의 立場에서는 生覺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時間은 나의 슬픔을 싣고 저 忘却의 彼岸으로 흘러가 버린 탓입니다. 내 가슴에 앉은 어탄애가 죽어도 나는 살리라는 冷酷한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子息안 죽인 집이 없었지만 그 어머니들은 如前히 健在합니다. 이것은 時間이 우리에게 주는 惠澤입니다. 그렇

게 보면 사람들은 이번 動亂을 우리 民族에게 無한 悲慘事라고 하나 그것이 統計上의 確率은 될지 몰라도 丙子胡亂이나 壬辰倭亂이 지금보다 덜 苦痛스러웠다는것을 그亂을 겪고 現在 生存해 있는 자라도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時間은 우리의 幸福에도 그런 干涉을 합니다. 아무리 幸福한 일도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점점 없어져가고 합니다. 千萬을 노리는 商人은 目的에 達成하자마자 億萬을 向해서 邁進합니다.

熱戀같이 미쳐서 思慕하던 愛人과 結婚한 다음 날부터 外道를 일삼는 것이 사람의 常情입니다.

이런 事實은 時間이라는 것은 얼마나 虛無한 것을 잘 말하는 것입니다. 將來는 現在의 內容으로서만 存在하며 過去는 現在에 물어음으로써 “無,”가 됨으로 있는 것은 現在 뿐인데 이 現在도 곧 “無,”로 도라가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卽 現在인 내가 未來의 他者를 指向하고 나가다가 거기에 到達하는 瞬間 그것은 벌써 없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時間이란 한 可能性에서 다른 可能性에 한 形相에서 다른 形相으로 언제나 “自己의” 幻影을 좇으며 生滅이 언제나 번갈아 생기는 限없는 “無,”으로 달리는 悲感스러운 旅人과도 같습니다.

이런 瞬間的인 現在라는 平面도 空間이라는 立體面에 依해서 無限하게 縮少를 當하고가는 것입니다. 卽 現在의 “나,”를 싸고도는 喜悲哀樂을 바로 알아서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 한 어린애를 낳아 기뻐하는 瞬間 저 마당에 놀고 있는 큰 아기가 自働車에 치였는 지모릅니다. 문을 달으면 문 밖의 봄은 장미가 있는지 怒한 봄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兄이여 당신을 괴롭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시 이 時間안에 制約받은 당신의 肉體를 싸고도는 그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이즈러지며 따라서 당신의 아내가 가고 親屬들은 돌보지 않는 슬픔입니다. 왜 당신을 성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憂鬱합니까 당신은 구보다 못해서이지요 그러나 당신이 표준하는 그는 무엇입니까 그도 時間안에 있는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 × ×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영화를 말할 때 저 나라를 말하며 時間的 王權을 願할때 차라리 가시판을 선택했고 빵을 찾는 배고픈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말하며 야곱의 샘만 자랑하는 사마리아 女人에게 永遠히

목마르지 않는 샘의 說敎를 하며 땅의 寶貨를 찾는 우리에게 寶貨를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에는 토적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좀도 먹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肉體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차라리 그 눈과 손을 없애 버리고라도 저 나라에 가는 것을 선택 하라고 권 했는대 이 心情을 當時의 사람들은 理解하지 못하였읍니다. 時間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虛構한 사기 한으로 보여 十字가에 體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永遠者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要請에 應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永遠”을 時間 안에 비꼬려 멸하고 했으며 예수는 저들을 둘러싼 “時間의 獄門”을 깨지려 했습니다.

× × ×

“永遠” 그것은 時間이 制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永遠을 時間의 無限連續같이 生覺하기 쉬우나 時間과는 質的으로 다릅니다. 그런고로 거기에는 過去도 未來도 없고 “永遠한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永遠을 絶對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는 보다 낫거나 보다 고운 것은 없고 善이면 善自體만이 있을 뿐입니다. 永遠은 空間의 制約을 받지 안

습니다. 그것은 實在自體이기 때문에 場所的인 “無”입니다. 卽 그것은 하루가 千年 같고 千年이 하루 같으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안에서는 知惠에 意志에 아무런 制約도 받지 않는 또 아무런 가리움도 없는 神의 直觀의 境地입니다.

萬一 우리가 이런 永遠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어리석은 者를 볼때에 또는 어린애를 볼때에도 그의 울음과 기쁨의 要素가 限없이 幼稚하거든 萬一 이 永遠에서 이 땅위에 떨어지는 모든 事實 그안에 있는 우리의 心境을 내리 본다면?

“鬼神들이 너에게 降服하는 것을 볼 때 하지 말고 너의 이통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네 肉體를 죽이는 者를 두려워 말고 네 靈을 地獄에 던지는 것을 무서워하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이며 땅위에 있는 것에 吸吸한 모든 전세같은 者와 名譽에 안일하는 者와 財物에 둘러 쌓인 富者를 불쌍히 보고 마음이 가난한 者를 애용하는 者를 爲始해서 땅에서 멸시를 받는 무리를 籲이 있다 고 하신 파 라 독시 칼한 말씀에 참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아 있을



것입니다. 山上垂訓은 奴隸의 道徳이라고 비난한 “賢明한 哲人”은 徹底한 時間의 奴隸인 것을 잘 알아 내고 있습니다.

X X X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永遠의 立場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萬一 永遠이란 自然主에서 말하는 것 같이 絶對的인 힘(Mana와 같은)이거나 또는 現想主義나 神祕主義에서 보는 超時間性(überzeit lich keit)이나 無時間性(Zeitlosigkeit) 같이 自己와 관계없이 純粹한 客體로서 固立化한 것이라면 우리와 아무 相關도 없고 미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聖經은 우리에게 놀라운 事實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永遠은 時間안에 있는 우리와 相關이 있다는 것입니다. 永遠이 時間안에 들어왔다는 事實입니다. 아니 永遠이 時間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永遠이 時間의 制約을 받는 肉體를 쓰고 우리를 찾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十字架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對答함으로서 그의 사랑을 믿음으로서 내 몸이 時間안에 있으면서도 永遠의 世界에 설 수 있고 거기서 부터 새로운

生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時間안에서 가진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恩寵입니까 못 聖徒들이 오히려 땅위의 苦難을 自進해서 질머진 것은 그 生命이 永遠한 품에 갇히 안긴 分명한 理由일 것입니다.

兄이여 萬一 우리가 이 永遠한 그리스도의 편에 分明히 선다면 지우 苦難의 意義가 理解하므로 慰勞받는 비 끝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찌 時間에서 되여지는 모든 것 時間안에서 자랑하는 모든 勢力 그리고 時間의 마王을 向해서 비웃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들과 掛戩하고 저들에게 사로잡히어서 刹主主義 唯物主義등등으로 즐다를 치는 저들을 解放해야 하겠다는 使命이 그리고 勇氣가 안 생길 것입니다. 나는 이 글을 끝이려고 하니 時間에서 永遠으로 비약한 사도바울의 凱旋歌가 생覺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억매었던 것(時間) 對하여 죽었으므로 不法에서 버서났으니 이렇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永遠한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것(時間的인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골짜기(時間의 지배하는 곳)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永遠者)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생각전대 現在의(時間안의)苦難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永遠한 나라)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은 적요 적의 권능은 율법(時間) 이니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야 많이 견메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곤난과 매 맞음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

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이상은 時間안에 있는 肉體에 수고)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감화와 거룩없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能力 안에 있어 義의 兵器로 싸우고 (이상은 永遠에서 오는 것)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時間안에서) 참되고 (永遠에서) 無名한 者 같으나 有名한 者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者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2월 1 일

## 待 望 의 書

心園 作

사 랑 의 魂

近日 刊

젊은 傳道人인 著者와 不日著인 한 少女와의 사이에 생긴 사랑과 信仰의 싸움은 지금은 이미 저 나라에 간 少女의 남긴 日記를 中心으로 쓴 1卷의 全 信仰의 記錄이다